

간 경 변 증 과 그 대 책



정 환 국

간경변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간이 굳어지는 것을 말한다. 간이 굳어지면 간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간경변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는 40세가 넘는 사람의 사망원인으로서 3번째 또는 4번째가 되는 흔하고 무서운 병이라 생각할 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 굳어진다고 해서 그로 말미암아 다 사망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간이 굳어도 그 3분의 1 또는 5분의 1 만의 간세포가 정상상태로 일을 하고 있으면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간은 몸속의 화학공장

그렇다면 간이 하고있는 일(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해보고자 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중 가장 큰 것의 하나로서 (1500 그램) 극히

복잡하고 세밀한 작업을 하는 화학공장이라 하겠다. 영양분을 우리 몸에 알맞게 만들어서 저장도 하고 전신 각 장기의 요구에 따라 적당한 성질의 것을 알맞게 분배도 한다. 체내의 노폐물은 해독을 하여 오줌이나 담즙 기타 방법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담즙산과 같은 소화기능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소화시 12지장에 보내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 몸에 간이 24시간이상 없으면 의사가 할수있는 무슨짓(치료)을 해도 살수가 없다.

간경변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추측되고 있다. 그중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이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 특히 혈청간염후 일어나는 만성간염인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음주에 의한 알콜간염이다.

전자는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 많고 후자는 구미에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에 의한 간경변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외에도 간경변의 원인으로 약물 기타 원인에 따른 중독성 간염에 의한 것, 구리나 철분이 침착하는 대사성질환에 의한 것, 기생충(간디스토마)등에 의한 것 등이 드물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일차성담도형간경변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 여하튼 우리나라에서는 혈청간염과 관계가 있는 만성간염에서 유래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만성간염은 흔히 가족적으로 발생한다. 또 위생상태가 나쁜 데서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고아원, 교도소등에 있는 사람들

이며, 또 피(血液)를 자주 취급하는 외과의사, 병원검사실 직원, 주사를 자주맞는 마약습관성환자, 수술시 수혈을 받은 사람들에서 자주 본다.

간경변의 증세 옛말에 '손톱밑에 바늘 든줄은 알아도 간에 쉬시는 줄은 모른다'는 속어가 있듯이 간경변이 심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정도가 되어도 간경변증환자의 80%는 아무런 증세도 느끼지 않는다. 즉 간에는 지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또 앞에 말한바와같이 간의 70%가 쓰지 못하게 망가져도 나머지 30% 만으로 충분히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하등 지장이 없다. 대개 초기 증상으로는 까닭없이 피로하고, 머리가 무거우며, 하는일에 쉽게 실증이 나는것이다. 자주 소화장애가 있고 흔히 코피가 난다. 소변색깔이 종종 검붉으며 (또는 진한 황색) 설사를 하는 수도 있다. 흔히 손바닥이 빨개지며 턱밑이나 앞가슴 또는 팔에 빨갛갓갓한 반점이 생기기도 한다. 열감이 검어지는 수도 있으며 황달이 생긴다. 심한때는 아랫다리가 붓고 복수가 생기면 배가 부어오른다. 식도정맥류가 터지면 토혈 또는 하혈을 하게 된다.

치료 간경변의 치료는 전문의의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간경변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취하여야한다. 어느정도의 안정을 얼마동안이나 해야하는것은 병증세 간기능검사 소견등에 따라 전문의사가 조절한다.

다음은 영양관리이다. 고단백 고칼

로리식을 섭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역시 그때 그때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예를들면 암모니아중독증세가 있으면 단백식을 줄이고 지방질의 소화가 안되면 이것 역시 조절해야 한다. 물론 음주는 모든 간질환에 금해야 되며 간에 해로운 약제나 수술 마취등도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감기, 설사등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일지라도 약물등으로 적극적 치료를 해야한다. 세균등에 대한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흔히 감염증이 생기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부종이나 복수가 생기면 안정과 동시에 무염식 즉 짜게 먹지말아야 하며 부득이 약물요법을 받을 경우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식도정맥류 파열이나 기타 원인으로 위장출혈이 있을때에는 즉시 입원해야된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전문의와 협력을 잘해가면서 치료하면 비록 심한 간경변증 즉 식도정맥류파열 또는 복수가 있었던 환자일지라도 약 50%는 5년 이상 약 30%는 10년이상 생명을 연장할수 있으며 상당수의 환자들이 만족한 사회생활을 할수 있다.

그러나 요사는 여러가지 진보된 방법과 훈련된 의사의 기술로서 심한 간경변증으로 발전하기전단계에 진단이 가능하고 이시기에 섭생과 치료를 적절히 하면 대부분의 생명을 구할수 있게 되었다.

금년들어 성모병원에서 조사한 연 구보고에 의하면 경변증이 되기전 만성간염은 생명을 잃는 일이 없으며 비록 간경변증으로 이행하고 있다해도 치료를 제대로 받은 사람중에서는

아직 활동성 만성간염기에 있는 환자는 약 90%가 10년 이상 생존할수 있었으며 그중 60%는 현재 완치되어 생업에 종사 하고 있다.

간경변증은 심한경변증 즉 말기에 이르기 전 만성간염기에 진단되어 적당한 치료를 받으면 죽지 않으며 완치유도 가능한 병이다.

<필자=가톨릭의대 내과 교수·의박>

◆ 닥터·김의 임상수첩

어린이의 가짜 병

원인불명의 열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국민학교 5학년 남자아이.

돌연 팔다리가 마비되어 걸을수가없게시리 발작이 2, 3차 일어나는 바람에 겁에 질려 찾아온 13세의 여자아이.

팔다리의 손가락 발가락끝이 새빨강게 되어서 아프다고 찾아온 11세의 여자아이.

마치 수막염(髓膜炎)을 의심케하는 증상들이 나타나 깜짝 놀랜 4세의 여자아이.

그런데 이런병들이 알고보니 모두 가짜병들이었다면 모두 놀랄거다.

이것은 모두 심인성(心因性)질환들. 진찰실에 있으면 이런 환자들이 심심함게 찾아온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현대의 어린이들은 예전에 비해서 행복스러운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면 더욱 불행해진 일면도 있다. 태어나서부터 겪어야하는 문화적 스트레스가 그것. 어찌보면 문화가 없었던 옛날의 평화스런 어린이들이 오히려 더 행복을 누리었을지도 모른다. 현대의 부모들은 어린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꾸며주는 일에 지혜를 짜내어야겠다.

당
노
병
은
고
칠
수
있
나



■ 김 응 진

일반적으로 원인을 잘 알수 없는 질병이나 체질(體質)로 일어나는 질병은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하더라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암(癌), 고혈압(高血壓) 및 당뇨병 따위는 그 좋은 본보기가 된다.

나면서부터 걸리기쉬운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 발병

당뇨병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병은 아니고 나면서부터 걸리기 쉬운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병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만증(肥滿症) 때문에 당뇨병이 발병하는 것도 그 하나이다. 당뇨병이 되기 쉬운 체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느 정도 비만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뇨병이 되고 마는 것이다.